

성학대 피해아동의 증언문제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성폭력 피해아동의 증언에 관한 문제는 크게 증언의 정확성과 진실성의 문제로 나뉜다. 우선, 스트레스와 각성상태가 아동의 경험에 대한 회상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회상기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 성학대·아동·증언·정확성·진실성·유도질문

아동의 목격진술에 대한 스트레스와 각성의 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기억과 진술은 평범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진술에 비하여 더 부정확할까, 아니면 더 정확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증적인 자료도 일관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기억과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연구결과 (Goodman, 1991)가 있는가 하면, 더 부정확하다는 결과 (Peters, 1987)도 있고, 마찬가지로 결과는 (Oates and Shrimpton, 1991)도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기억이 평범한 상황에 대한 기억보다 더 정확하다는 주장은 소위 '인쇄기억 (flashbulb memory)'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현상은 놀라운 소식이

나 뉴스 (예를 들면 대통령 암살뉴스)를 듣는 순간의 주위환경의 모양이 마치 사진을 찍어두듯이 뇌리 속에 각인되어 나중에 매우 정밀한 시각적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다. 심리적인 쇼크 혹은 충격을 경험하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각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각성호르몬의 작용에 의하여 인화기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Gold, 1987). 호르몬작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기억이 평범한 상황에 대한 기억보다 우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Terr (1990)는 어린 시절에 형제가 죽거나 본인이 강간당한 경험을 한 아동들이 그 사건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임상사례들을 발표하였다. Goodman et al. (1991)은 한집단의 아동들 (3세와 6세)에게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의 유사한 아동집단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한 후 3~9 일이 지나서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들이 일 상적인 경험을 한 아동들보다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유도질문이나 암시에 대해서도 덜 왜곡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기억이 평범한 상황에 대한 기억보다 부정확하다는 증거도 많이 존재한다. Peters (1987)는 스트레스 상황과 평범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기억을 비교하기 위하여 치과 의사들의 협조를 얻어 연구하였다. 아동이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날짜와 시간을 배정받고 돌아온 후, 연구조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치과 의사의 목소리와 얼굴모양에 대한 재인기억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기억자료이다. 그런 후 다른 연구조교가 아동의 가정을 재차 방문하여 이번에는 처음 방문하였던 연구조교의 목소리와 얼굴모양에 대한 재인기억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평범한 상황에 대한 기억자료이다¹⁾. 이 자료들의 분석결과 평범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기억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Vandermaas (1991)도 치과상황을 이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치과상황 대신에 모르는 사람과 대면하는 상황 (Peters and Hagen, 1986), 예방주사 맞는 상황 (Hagen, 1987)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단순히 스트레스 상황을 실험적으로 이용하고 그 상황이 높은 스트레스와 각성상태를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경험된 스트레스와 각성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높은 스트레스가 아동의 기억을 손상시키는지를 알아본 실험도 있다. Bugental et al. (1992)은 피기스러운 얼굴들이 나오는 비디오 영화를 아동들에게 보여주면서 피부전기전도 (electrodermal response)와 심

장박동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자료분석을 통하여 피부전기전도와 심장박동이 높은 각성상태를 나타낸 시점 바로 직후에 보여졌던 장면들이 그 시점 이전에 보여졌던 장면들보다 더 부정확하게 기억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아동이 목격자인 경우, 성인과 차이가 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목격 당시의 스트레스 수준 뿐만 아니라, 진술 당시의 스트레스 수준이 그 진술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아동목격자에게 소위 '줄서기 (line-up)' 방법에 의해 범인을 가려내도록 하는 경우 아동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더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수준이 범인 지적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 (Dent and Stephenson, 1979). Peters (1988)는 바로 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우 세련된 $2 \times 2 \times 2$ 의 요인설계 (factorial design)를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사건형태 요인으로 절도상황을 연출하거나 비절도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조작되었다. 이것은 사건 당시의 스트레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작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진술형태로 사건을 목격한 아동들이 사건 속의 인물을 '줄서기'된 진짜 사람들 속에서 지적하거나, 사진들 속에서 지적하게 하므로써 조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술 당시의 스트레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조작이었다. 마지막 실험요인은 제시된 용의자들 혹은 사진들 속에 진짜 범인 혹은 과녁인물 (target)이 포함되거나, 누락되거나 조작한 것이었다. 결과는 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 (절도상황)에는 진술이 스트레스상황 (줄서기)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지 않을 때 (사진고르기)에 비하여 더 부정확하지만, 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비절도)에는 진술형태가 줄서기이건 사진고르기이건 진술의 정확성에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동진술의 정확성에 대하여 사

1) 여기서 "평범한" 상황이란 스트레스나 긴장 등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진행태와 진술형태가 상호작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진술형태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법정진술을 하는 경우, 특히 아동 性虐待 (sexual abuse)의 사례에서 목격아동 자신이 또한 피해자이므로 그 아동이 진술하는 동안 피의자와의 대면을 칸막이 등으로 막아서 그 아동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논쟁, 즉 소위 '방패법 (shield laws)'에 관한 논쟁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의자가 자신을 고발하는 당사자를 직면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미국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Coy v. Iowa, 108 S. Ct. 2798(1988)).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피의자는 아동증인을 볼 수 있지만 아동증인은 피의자와 대면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Goodman, 1984; Peters, 1991).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아동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더 많은 연구들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듯이 사료된다. 아동의 기억에 대한 스트레스와 각성의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인화기억현상을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화기억이 이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홀몬작용 혹은 생리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Pillemer, 1990). 그렇다면 그것은 스트레스 효과라기 보다는 반복효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상황과 같이 아동이 매우 잘 알고있고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기억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아동이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기억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Ceci and Bruck, 1993). 만

약 그렇다면 범죄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아동목격자의 기억과 진술의 정확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性虐待 피해아동의 목격진술

아동이 목격자로서 증언대에 서게되는 재판사례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목격자인 아동 자신에 대한 성학대 사례라고 한다 (Leippe, Brigham, Cousins, and Romanczyk, 1989). 그런데 미국의 보건성 자료에 의하면 1990년 한해 동안에 관계당국에 접수되어 확인된 아동에 대한 성학대 범죄건수는 138,357 건에 이른다고 한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2). 또한 Newsweek 지의 보도 (April 19, 1993)에 의하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의 한 조사결과 1992년 한해 동안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무려 3백만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성학대 사례가 엄청난 규모의 수치를 보이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1974년에 미국의회에 의해 통과된 '아동학대예방 및 취급에 관한 법률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거론된다. 이 법률은 국민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보모들, 소아과 다루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특정한 아동이 부상이나 기타의 징후들로서 학대받고있음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많은 수의 실제 성학대 사례들이 신속히 보고되어 아동의 회생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수의 사례들이 오해에 의해서 신고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이르게 하는데도 한몫을 하였다. 많은 경우에 특정한 사례가 실제 성학대 사례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기준 중의 하나가 아동의 진술이다.

性虐待 (sexual abuse)에 관한 아동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문제시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실질적, 학문적 의문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첫째는 아동이 그러한 성경험 혹은 성적 암시가 있는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기억 및 진술의 정확성 (accuracy)의 문제이다. 둘째는 아동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진실성 (credibility)의 문제이다.

(1) 정확성

성학대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그들의 진술이 교묘한 유도질문 등에 의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 사례에서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에 의한 연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성학대의 경우 잠정적인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실기준이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또한 실험방법을 통한 연구도 성학대의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까닭에 생태계적으로 타당하고 과학적으로 진실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본질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들로서 Goodman and Clarke-Stewart (1991)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Finkelhor, 1984). 14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1940년 이후 해마다 이들의 10% 내지 12%가 자신보다 적어도 5세

이상의 연장자 남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Newsweek, April 19, 1993). 한국의 경우에 이우선 (1980)이 표집한 자료에 의하면 강간 및 강간치상사건의 55%가 18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발생한다고 한다²⁾. 한국에서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많다는 것은 더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성학대나 성폭행도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다른 강력범죄와는 달리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육체적인 흔적이나 목격자가 결여된 경우, 즉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의 진술이 유도질문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그만큼 더 크다. 셋째, 과거에 비해서 미성년자와 아동이 법정에서 증인이나 목격자로 채택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들 진술의 신뢰성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성학대 혹은 성범죄의 경우 만약 아동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서 법이 판단 오류를 범하면 매우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있어서 범죄인을 무죄로 판결하면 불쌍한 아동을 범죄인에게 내어 맡겨서 지속적인 범죄의 희생물이 되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고한 성인을 유죄판결하면 그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억울하게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학대 혹은 성범죄 사례에서의 아동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앞서 아동의 목격진술이 유도질문 등의 암시에 의해 왜곡되는지의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Goodman, Rudy, Bottoms, and Aman (1990)는 특히 성학대에 관한 아동의 진술이 암시에 의해 왜곡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학대가 존재하거나 연출된 상황에서 아동의 진술을 검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성학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술이 성적인

2) 이우선(1980)의 자료가 어떻게 표집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체계적으로 편파된 표본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다.

암시에 의해 왜곡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성학대가 실제로는 없었는데 암시에 의해서 그러한 성학대가 있었다는 대답을 하면 그것이 진술의 부정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되어 실제로 성학대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또한 얼마나 정확, 혹은 부정확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들은 아동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여행용 트레일러)를 꾸미고 그 안에서 4세와 7세 아동들이 한명의 성인 남자와 놀게하였다. 놀이를 하는 동안에 성인 남자는 특별히 성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광대웃을 입히거나, 사진을 찍거나, 간혹 간지럼을 태우는 행동 등을 하였다. 그런 후, “그가 네 웃을 벗겼지?” 혹은 “그 사람이 너에게 입맞춤을 몇번 했니?” 등의 성적인 암시가 내포된 유도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아동들의 응답을 기록한 결과, 유도질문을 받은 아동들과 비유도적인 질문을 받은 아동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응답을 하였고, 유도된 암시에 의해서 아동들의 진술이 왜곡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동들이 최소한도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유도된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위의 연구와 유사한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황을 이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 Goodman, Bottoms, Schwartz-Kenney, and Rudy (1991)는 3세 아동들도 면담을 하는 성인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 주면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잘못 진술하는 오류 (폭행, 입맞춤, 웃을 벗김, 등)를 거의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Goodman, Wilson, Hazan, and Reed (1989)는 건전한 실험상황을 경험한 아동들을 4년 후에 재측정하여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진술이 유도된 암시에 의해 왜곡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그가 너를 껴안고 입맞춤했지?” 등의 유도질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4년 후의 아동들의 기억이 매우 부정확하고

많은 오류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진술하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아동의 진술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Saywitz, Goodman, Nicholas, and Moan (1989)은 극히 드문 연구를 통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고, 만져진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진술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5세와 7세의 여자아동 72명으로 하여금 내과병원에서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성기와 항문의 검진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한 국부적 검진이 포함되지 않은 신체검사를 받았다. 신체검사 후 일주일과 한달이 지나서 그 경험에 관한 진술을 채록하였다. 아무런 구체적 혹은 유도된 질문 없이 아동이 스스로 경험한 내용을 회상기억하게 한 경우에는 성기와 항문의 검진을 받은 여자아동 36명 중에 30명 이상이 그러한 국부적 검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즉, 있었던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예/아니오” 대답을 요구하는 다소 유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나, 성기를 포함한 인체의 외부적 특징이 잘 묘사된 인형을 이용하여 “의사가 너의 여기를 만졌니?” 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31 명이 “예”라는 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반면에 국부적 검진을 받지 않은 여자아동들은 똑같이 인형을 이용한 유도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아니오”라는 정확한 답변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적인 학대나 경험이 존재치 않은 경우에는 유도질문을 하여도 아동들이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는 반면에, 성적인 학대나 경험이 존재한 경우에는 오히려 다소 유도적인 질문을 하여야 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목격자의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암시적인 유도질문

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해악보다는 유익한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진실성

성학대와 관련된 아동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지금까지 개관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들이 최선을 다하여 진실을 기억해내고 진술하고자 한다는 가정위에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들은 아동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것은 아동의 기억 혹은 정보처리과정이 왜곡된 결과이지,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꾸며낸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히 성범죄 사례에서 피해자가 동시에 목격자인 경우, 목격자 진술의 진실성이 실제 법정에서는 정확성의 문제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제3의 목격자의 그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범인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범인과 아동피해자가 잘 알거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도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를 자행한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데 피해자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이 범인이 법적인 처벌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적극적인 동기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아동이 부모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정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한쪽에 의한 성학대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 (Raskin and Yuille, 1989).

Piaget (1926)는 의도적인 거짓말은 고도로 발달한 인지능력과 소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mindreading)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린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Whiten, 1991). 그러나 Lewis et al. (1989)는 3세 아동들을 이용한 실험에서 40% 정도가 확실한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Leekam

(1992)은 4세 아동들이 거짓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목격진술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의도적인 부정직성은 다양한 사회적, 동기적 요인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데, 이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연구들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거짓말에 의한 잘못된 진술과 기억상실 혹은 주의력 결핍에 의한 잘못된 진술을 가려내기 위하여 통제집단 (control group)을 실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실험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요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린 아동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Bussey, 1992). 둘째로, 아동들은 주어진 상황을 게임이나 놀이상황으로 지각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 (Tate et al., 1992). 셋째로, 어른이 거짓말이나 비밀을 지시하는 경우, 심지어 3세의 아동들도 그 어른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Wilson and Pipe, 1989; Peters, 1991). 만약 그 어른이 아동과 친밀한 사람인 경우에는 거짓말이나 비밀유지의 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Bottoms et al., 1990). 넷째로, 어린 미취학 아동들도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 소극적인 묵비권 행사 (3세)를 하거나 적극적인 거짓말 (4세)을 할 수 있다 (Leekam, 1992; Ceci et al., 1993). 다섯째로, 3세의 아동들도 창피, 부끄러움, 죄의식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있었던 사실을 부정 (errors of omission)하거나 없었던 사실을 인정 (errors of commission)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Ceci et al., 1993). 예를 들어 하루 전날 부모가 아이들을 목욕시키면서 키스를 해주고,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옷을 벗고 목욕하는 중에 키스하는 것은 지저분한 행동이라고 말해준 후, “내가 옷을 벗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키스

한 적이 없지?”라고 물으면 “없다”라는 대답을 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한다 (Ceci et al., 1993).

아동의 진술에 있어서 이러한 진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준거토대에 의한 내용분석 (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이라고 불리는 감정기법이 개발되었다. (Steller et al., 1988; Raskin and Esplin, 1991). 이 CBCA 기법은 성학대의 피해자라고 예상되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인 경험에 대하여 최대한도로 자세히 진술하게 하고 그것을 채록한 후, 그 내용을 19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연 그 아동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낸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 19 가지의 기준이 Raskin and Esplin (1991, p. 156)과 Anson et al. (1993, p. 333)에 제시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진술의 논리성, 조직성, 구체성, 특이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평정자들은 이 19 개의 기준들에 대하여 “예-아니오” 혹은 “있음-없음”의 이분화된 평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준들은 많은 성학대의 사례들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성학대에서 발견되지만, 보통사람들이 알고있는 상식과는 배치되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인 경우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준거들과,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는 것이 어려운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특히 아동들은 성행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하므로써 진실성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친부모 혹은 형제자매에 의해 성학대가 이루어지는 소위 근친상간의 사례들은 거의 예외없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 발전되기 마련이다 (Rickel and Hendren, 1993). 그런데 아동이 만약 어느날 갑자기 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 돌발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성행위 (intercourse)를 하였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적 기초에서 개발된 CBCA는 사건에 대한 다른 정보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진술의 진실성 판단에 이용된다.

CBCA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세편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CBCA의 타당도는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히 구별해내는가에 달려있다. Steller, Weller-shaus, and Wolf (1988)는 국민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아동 98명에게 이야기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아동들은 주사맞기, 수술받기, 채혈하기, 치과치료받기, 사고가 나서 부상당하기, 다른 아동에게 매맞기, 개에게 물리기 중에서 한가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사건은 꾸며내어서 이야기 하는 경연대회를 하였는데, 이 대회는 상품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이 대회에서 아동들이 구술한 이야기를 기록한 후, 훈련받은 대학원생들이 CBCA 준거들을 적용하여 각 이야기를 평가하였다. 이 평가치들을 분석한 결과 CBCA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와 꾸며낸 이야기를 잘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각 이야기에 대한 19가지의 기준평가중 평균적으로 72% 정도에서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실제 성학대 재판사례를 이용한 CBCA의 타당도 연구가 Esplin, Houed, and Raskin(1988)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40명의 아동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채록하였는데, 이중 20건은 범인이 자백을 하거나 신체적인 증거 (치녀막 파열 등)가 뚜렷하여 아동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나머지 20건은 피의자가 일관되게 피의 사실을 부인하였거나, 아동이 나중에 거짓말하였음을 자백하여 검사가 소송을 취하였거나,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들이었다. 이 40건의 재판기록에 기재된 아동피해자의 목격진술을 CBCA 준거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이 평정치에서 두종류의 사건집단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사건집단들이 대단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8)=16.53, p<0.001$). 즉, CBCA

준거들이 확실한 진술과 의심스러운 진술을 매우 확연하게 구별짓는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Anson et al. (1993)은 성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4세부터 13세 사이의 아동 23명(남자 43%, 여자 57%)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CBCA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아동의 진술내용을 CBCA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CBCA의 19개 기준들중 평균적으로 75% 정도에서 전문가들의 평정이 일치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Steller et al. (1988)의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정자들의 평가는 우연에 의해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한 kappa 지수를 산출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비교적 낮은 0.29를 보여주었다. 평정자 일치도가 가장 높았던 기준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지의 여부' ($kappa=1.00$)와 '사건 당시 가해자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의 여부' ($kappa=0.70$)'이었고 평정자 일치도가 가장 낮았던 기준은 '아동진술 속에 동종의 범죄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징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kappa=-0.30$)와 '아동의 진술이 우왕좌왕하고 비조직적이며 촛점이 불분명한지의 여부' ($kappa=0.01$)'였다.

Esplin et al. (1988)의 연구에서보다 Anson et al. (1993)의 연구에서 CBCA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다소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하여 Anson et al. (1993)은 자신들 연구의 아동들 연령이 기존연구에서보다 다소 낮았고, 따라서 아동의 진술이 더 빈약했기 때문일 가능성과 기존연구에서는 아동의 진술을 채록한 원고를 평정한 반면 자신들의 연구에서는 비디오 필름을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채록원고의 사용은 비디오 필름보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 아동의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Anson et al. (1993)은

CBCA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하여 채록원고와 비디오 필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있고, 가능한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게 CBCA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CBCA의 적절한 사용은 성학대에 관한 아동의 진실된 진술과 거짓된 위증을 구별하기 위한 비교적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준거들은 유럽의 전문가들이 그 문화속에서 그동안 발생해 온 아동의 성학대 사례들로부터 경험적인 공통점을 도출하여 구축한 이론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양상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준거들을 한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19개의 준거들이 한국적인 아동 성학대의 양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그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아동 성학대의 한국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먼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우선 (1980). 정조에 관한 죄의 양형인자에 대한 분석 (특히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 재판자료 제 5집. 서울: 법원 행정처.
- Anson, D. A., Golding, S. L., and Gully, K. J. (1993).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Reliabilit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17, 331-341.
- Bottoms, B., Goodman, G., Schwartz-Kenney, B., Sachsenmaier, T. and Thomas, S. (1990). *Keeping secret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 and Law Society, Williamsburg,

VA.

- Bugental, D., Blue, J., Cortez, V., Fleck, K., and Rodriguez, A. (1992). Influences of witnessed affect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774-786.
- Bussey, K. (1992). *Children's lying and truthfulnes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In S. J. Ceci, M. Leichtman, and M. Putnick (Eds.),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 Preschoolers' Deception*. Hillsdale, NJ: Erlbaum.
- Ceci, S. J. and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Dent, H. R. and Stephenson, G. M. (1979). *Identification evidenc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factors affecting the reliability of juvenile and adult witness. In Farrington, Hawkins, and Lloyd-Bostock (Eds.), *Psychology, Law, and Legal Processes*.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ress.
- Esplin, P. W., Houed, T., and Raskin, D. C. (1988). *Application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Paper presented at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Maratea, Italy.
- Finkelhor, D. (1984). *Child Sexual Assault*. New York: Free Press.
- Gold, P. (1987). Sweet memories. *American Scientist*, 75, 151-155.
- Goodman, G. S. (1984). The child wit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0(2).
- Goodman, G. S. (1991). Commentary: On stress and accuracy in research on children's testimony. In J. Doris (Eds.),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odman, G. S., Bottoms, B. L., Schwartz-Kenney, B., and Rudy, L. (1991). Children's memory for a stressful event: Improving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1, 69-99.
- Goodman, G. S. and Clarke-Stewart, A. (1991). Suggestibility in children's testimony: Implications for sexual abuse investigations. In J. Doris (Eds.),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Implications for Eyewitness Testimony*.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odman, G. S., Rudy, L., Bottoms, B., and Aman, C. (1989). Children's concerns and memory: Ec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children's eyewitness memory. In R. Fivush and J. Hudson (Eds.), *What Young Children Remember and W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man, G. S., Wilson, M. E., Hazan, C., and Reed, R. S. (1989). *Children's testimony nearly four years after an even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March, Boston.
- Hagen, S. (1987). *The effects of arousal on children's memories in a natural setting*.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Dakota.
- Leekam, S. (1992). Believing and deceiving: Steps to becoming a good liar. In S. J. Ceci, M. Leichtman, and M. Putnick (Eds.),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in Early Deception*. Hillsdale, NJ: Erlbaum.

- Leippe, M. R., Brigham, J. C., Cousins, C., and Romanczyk, A. (1989). The opinions and practices of criminal attorneys regarding child eyewitnesses: A survey. In S. Ceci, D. F. Ross, and M. P. Toglia (Eds.), *Perspectives on Children's Testimony*. New York: Springer.
- Lewis, M., Stranger, C., and Sullivan, M. (1989). Deception in three-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39-443.
- Oates, K. and Shrimpton, S. (1991). Children's memories for stressful and non-stressful event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31, 4-10.
- Peters, D. P. (1987). The impact of naturally occurring stress on children's memory. In S. J. Ceci, M. P. Toglia, D. F.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New York: Springer-Verlag.
- Peters, D. P. (1988). The effects of event-stress during lineup identifications on eyewitness accuracy in children. In D. Peters (Chair), *The Child Witness Today: Research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 and Law Society, March, Miami.
- Peters, D. P. (1991). The influence of stress and arousal on the child witness. In J. Doris (Eds.),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Implications for Eyewitness Testimony*.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 D. P. and Hagen, S. (1986). *A stranger at daycare: Preschoolers' memory of physical contact, faces, and voic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Piaget, J. (1926).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illemer, D. B. (1990). Clarifying the flashbulb memory concept: Comment on McClosky, Wible, and Cohen (1988).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9, 92-96.
- Raskin, D. C. and Esplin, P. W. (1991). Assessment of children's statements of sexual abuse. In J. Doris (Eds.),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Implications for Eyewitness Testimony*.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skin, D. C. and Yuille, J. C. (1989). Problems in evaluating interviews of children in sexual abuse cases. In S. J. Ceci, D. F. Ross, and M. P. Toglia (Eds.), *Perspectives on Children's Testimony*. New York: Springer-Verlag.
- Rickel, A. U. and Hendren, M. C. (1993). Aberrant sexual experiences in adolescents. In Thomas P. Gullotta, Gerald R. Adams, and Raymond Montemayor (Eds.), *Adolescent Sexualit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Saywitz, K., Goodman, G. S., Nicholas, E., and Moan (1989). *Children's memory for a genital examination: Implications for child sexual abuse cases*. In G. S. Goodman (Chair), Can child provide accurate eyewitness reports? Symposium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Steller, M., Wellershaus, P., Wolf, T. (1988). *Empirical validation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Maratea, Italy.
- Tate, C. S., Warren, A. R., and Hess, T. H. (1992). Adults' liability for children's "lie-ability": Can adults coach children to lie successfully? In S. J. Ceci, M. Leichtman, and M. Putnick (Eds.),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 Preschoolers' Deception*. Hillsdale, NJ: Erlbaum.
- Terr, L. (1990). *To Scared to Cry: Psychic Trauma in Childhood*. New York: Harper and Row.
- Vandermaas, M. (1991). *Assessment of young children's anxiety during dental procedur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Whiten, A. (1991). *Natural Theories of Mind: The Evolution, Development, and Simulation of Everyday Mindreading*.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Wilson, J. C. and Pipe, M. E. (1989). The effects of cues on young children's recall of real events.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18, 65-70.

Eyewitness Testimony of Sexually Abused Children

Kwang B.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wo major issues are involved in eyewitness testimony of sexually abused children: accuracy and truthfulness. The present paper reviewed empirical literature regarding the accuracy of children's testimony under stress and emotional arousal. Next, empirical literature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sexually abused children was reviewed.

Key Words : sexual abuse · children · testimony · accuracy · truthfulness · suggestibility